

2004년 학회 일을 마치고...



며칠 전 학회의 기술지 편집을 담당하는 이기옥 과장으로부터 “고분자 과학과 기술”지의 마지막 호에 학회 후기를 써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또 한번 했다. 나의 고분자학회와의 인연은 1989년 6월 한국에서 처음 개최된 “기능성 고분자에 관한 IUPAC 국제심포지움”의 사무국 학술담당 운영간사로 위임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편집간사(1991), “IUPAC MACRO ‘96 SEOUL” 학술위원회 간사(1996), 재무이사(1996), 총무이사(2003) 이외에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한 시간을 더하면 거의 10년 동안 봉사하여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긴 활동의 결정체라고 생각되는 전무이사로서의 업무를 올 초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몇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회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둘째 회원들의 학술활동 및 교육프로그램의 선진화를 위한 질적 서비스 개선, 셋째 학회 사업의 회원들의 참여 확대를 통한 회원 증대 및 수익성 제고 등등.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처음 시도한 것은 사무원들의 업무를 보다 세분화하여 학회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학회 전산화 시스템의 확립과 회원들의 웹 메일 주소의 구축을 통하여 학회사업의 안내에서부터 등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상에서 운영함으로써 사무국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참가 회원수의 증대는 물론 운영비도 대폭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업무의 편리성과 효율성의 개선과 달리, 4월과 10월에 개최된 학술발표회의 경우 사전등록자의 비율이 예년에 비하여 약 5%에서 20% 증가하였지만 등록수입은 반대로 떨어지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기현상이 발생하였다(참고로 사전등록자의 경우 현장등록비의 25%를 줄여준다). 한편,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처음으로 포스터 발표와 함께 산업계의 전시 부스를 설치하여 많은 회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사실 기업체의 전시는 관련 벤처기업들의 제품을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 관련 업체의 위상을 제고함과 더불어 기업체 회원들의 학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김영하 회장님이 특별히 고안한 행사이었다. 또 올 해 처음으로 우수포스터상을 시상하였고, 새로 준비한 “신진연구자 특별 심포지움”이 새로운 학문에 대한 회원들의 열망과 함께 외국에서 막 귀국한 젊은 신진연구자들의 본인 홍보라는 두 가지 장점 때문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 같다. 다른 특징은 올 회장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학회 사상 처음으로 춘계학술대회가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그 이유는 물론 행사장으로 대학을 선정할 때 마다 논란이 되었던 학기 중 강의실 및 포스터 장소의 확보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 갑작스런 행사장의 변경이 10월 학술대회를 불과 3개월 앞두고 발생하여 적지 않은 걱정을 하였다. 하지만 당초 우려와 달리 개최지인 호텔의 모든 발표장들이 기존의 대학 강의실 보다 넓고, 한 건물에 집중되어 있어 학술대회를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호텔이 대규모 학술대회를 개최한 경험이 적어 예상하지 못했던 해프닝도 있었다. 사전에 요청했음에도 호텔 측의 준비 부족으로 점심을 하는데 보통 30분 이상씩 기다리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였고, 일부 회원들의 불만의 소리도 들어야 했다. 따라서 아무리 훌륭한 행사도 배가 고프면 소용이 없다는 현실 강제(?)를 깨달았다. 더욱이 행사 때 마다 학회에서 예우에 가장 신경 쓰는 전임회장단의 식사 시간에 재료가 떨어져 1시간 가까이 기다리고, 또 밥이 부족한 옷치 못 할 일들이 발생한 것은 잊을 수 없다. 하지만 학술대회가 대구에서 개최되었음에도 등록 인원 1122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어느 대회 보다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다. 이것은 경북대학교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며, 이에 감사를 드린다.

이외에, 회원들에 대한 질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학회사업의 장소 선정에서부터 강의 제목의 현실화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토론회(48명), 아카데미(174명), 기기분석(185명) 등 모든 사업을 그 어느 해 보다 성황리에 마치는 물론 학회의 수익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런 성공적인 운영에는 묵묵히 지원해 주신 회장님과 더불어 헌신적으로 협조해 준 운영이사들과 사무원들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였기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또한 학회설립의 주요 목적인 학술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폴리머” 및 “Macromolecular Research”의 편집위원장으로서 학술지의 발간뿐 아니라 국제적인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동안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신 순천대학교의 도춘호 교수님과 포항공대의 장태현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2005년 을유년(乙酉年)에도 고분자학회와 회원님들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기술지편집위원회 위원장 한양규>